

三韓의 木棺墓에 대하여

- 嶺南地方出土 資料를 中心으로 -

李 柱 憲*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木棺墓의 構造와 系統 |
| II. 遺蹟과 遺物 | 가. 構造 |
| 가. 金海良洞里遺蹟 | 나. 系統 |
| 나. 金海大成洞遺蹟 | IV. 木棺墓의 出現과 三韓時代의 |
| 다. 昌原茶戶里遺蹟 | 展開 |
| 라. 咸安道項里遺蹟 | V. 맺음말 |
| 마. 慶州朝陽洞遺蹟 | |

I. 머리말

우리나라의 古代史에 있어서 三韓은 半島北部의 古朝鮮과 함께 오랫동안 韓國史의 첫장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先史時代와 歷史時代의 過渡期의 時期이다. 그동안 三韓에 대한 研究는 百濟, 新羅, 伽倻王國의 前身으로서 文獻史學에서 뿐만아니라 考古學 분야에서도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文獻史學에서 三韓의 문제는 古代 三國研究의 先行作業의 일환으로서 韓國古代 社會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近代의 歷史研究 方法論이 도입된 1910년대 이래 현재까지 三韓에 대한 研究는 다양한 方面으로 이루어져, 三韓의 疆域 및 古地名分析作業 등 문헌고증을 통한 歷史地理學的 고찰에서부터 三韓의 成立, 社會相, 辰韓의 位置問題, 三韓과 辰國의 發展過程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고고학적인 遺蹟 遺物에 기초한 또는 인류학적인 이론의 활용을 통한 三韓社會의 기본성격을 규명하려는 일련의 작업은 嶺南地方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성과로 靑銅器時代에서 三國時期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 지방에서 三韓의 주요한 墓制로 생각되는 木棺墓들이 양호한 상태로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그동

* 昌原文化財研究所

안 遺物資料의 분석에만 치중되었던 木棺墓의 연구경향에서 이제 출토유물과 발견유구의 종합적인 분석연구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 이 時期의 文化的 系統과 樣相과악이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 지방의 木棺墓遺蹟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三韓의 주요제인 木棺墓의 기본 構造를 살피고 그 系統에 대한 문제와 木棺墓에 反映된 당시 三韓社會의 性格에 대하여 약간의 考察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遺蹟과 遺物

가. 金海 良洞里 遺蹟(圖面 1~3)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것으로 木棺墓는 6기이다. 현지표상 봉토의 흔적은 없으며 후대의 木槨墓들과 서로 중복되어 遺構의 상부가 파괴된 곳이 많다.

墓壙의 平面形態는 정형성이 보이지 않으며 長軸의 方向은 대부분 등고선 방향을 따르고 있으나, 東-西방향의 遺構가 대부분이다. 遺構가 분포된 位置나 構造的인 특징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진다¹⁾.

〈表 1. 良洞里 木棺墓〉

()의 수치는 목관의 잔존치임.

號	規 模(cm)			平面形	長 軸	出 土 遺 物
	長	幅	深			
文2	310 (204)	125 (64)	157	末角 長方形	東-西	조합우각형과수부호 1, 단경호 1, 주머니호 1, 철부 2, 철검 1, 도자 1.
東17	265 (220)	119 (79)	117 (35)	"	"	金銅製釧, 玉, 무문토기호 1, 단경호 1, 주머니호 1, 철부 1, 철검 1, 조합우각형과수부호 1
東52	317 (235)	170 (83)	145 (40)	"	"	단경호 1, 무문토기용 1, 두형 토기편, 철부 1, 철검 1, 玉
東55	293 (243)	123 (66)	112 (35)	"	"	단경호 2, 주머니호 1, 동경 1, 환형동기 1쌍, 검파 1, 철검 2, 철모 1, 철부 1, 玉등
東70	215 (180)	80 (45)	33 (32)	長方形	南-北	무문토기 호 2, 점토대용 1
東99	251 (206)	110 (60)	90 (30)	末角長方形	東-西	조합우각형과수부호 2, 주머니호 1, 청동환 1, 철검 1, 철모 2, 철부 1, 철검 1, 철촉 3, 따비 1, 玉
東151	221 (138)	101 (42)	90 (40)	"	"	조합우각형과수부호 2, 주머니호 1, 단경호 1, 철부 1, 철검 1, 玉

1) 林孝澤, 《洛東江流域伽耶의 土壤木棺墓研究》 漢陽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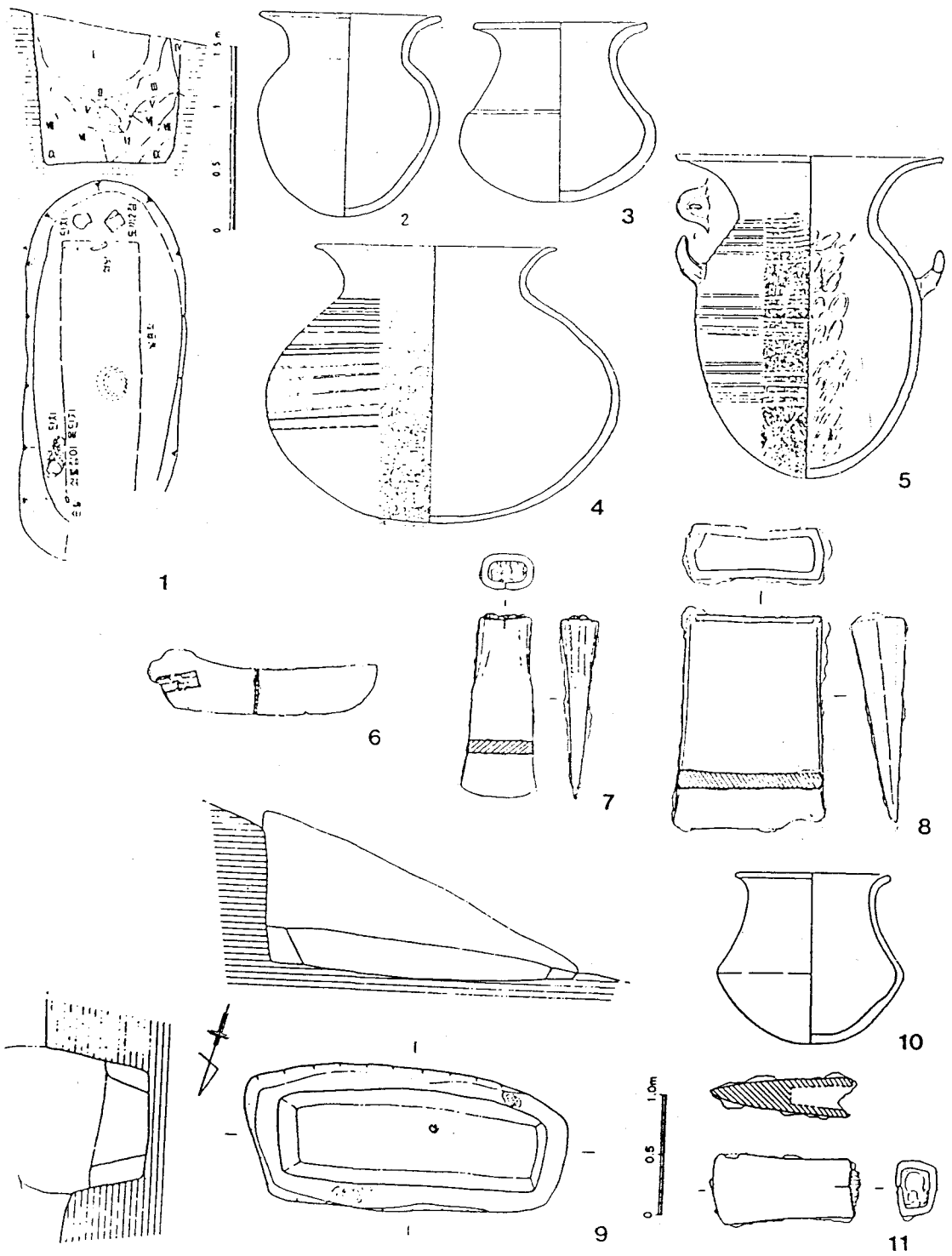


圖 1. 良洞里 木棺墓 - 1~8: 〈文〉 2號, 9~11: 〈東〉 1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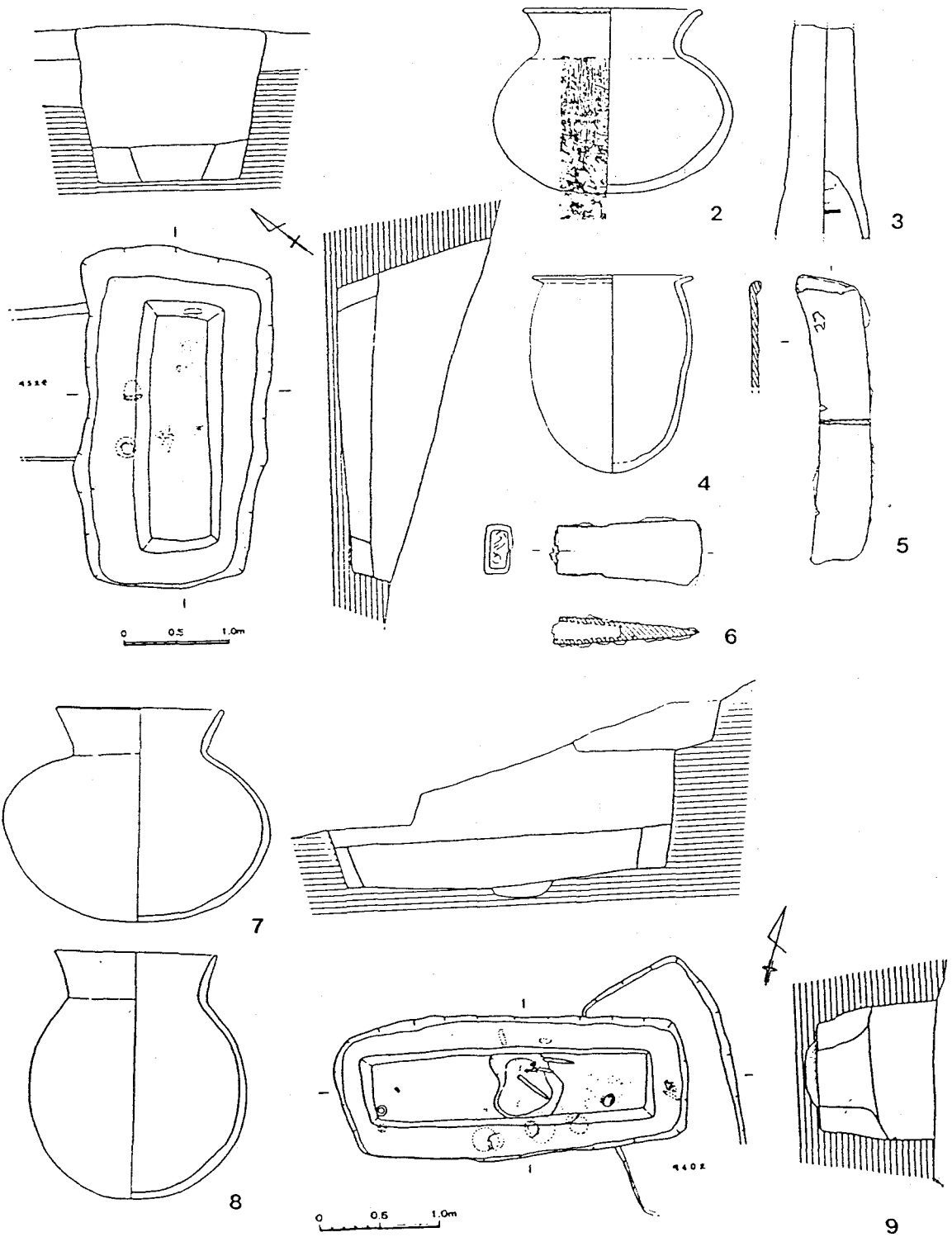


圖 2. 良洞里 木棺墓 - 1~8: <東> 52號, 7~9: <東> 5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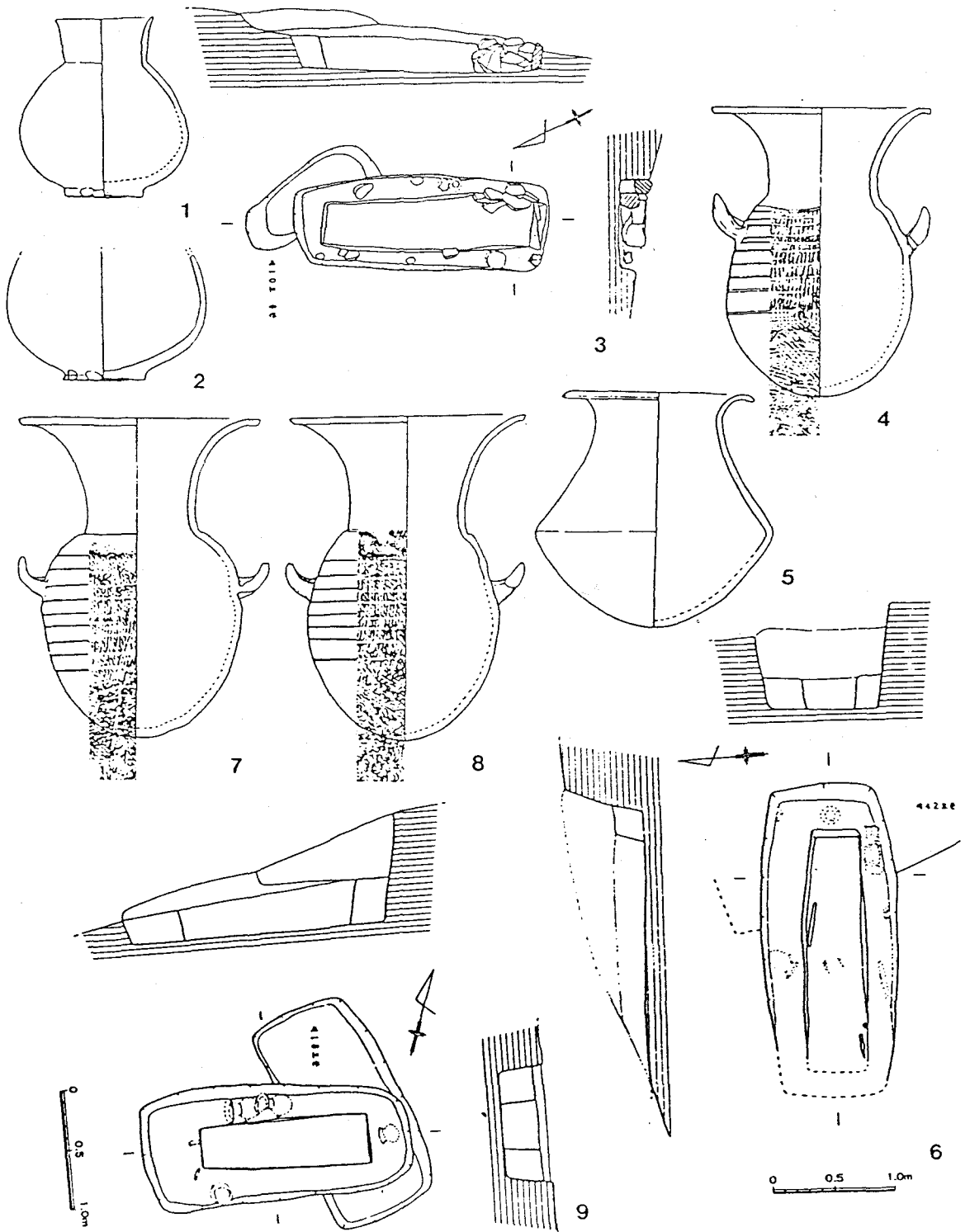


圖 3. 良洞里 木棺墓 - 1~3 : < 東 > 70 號, 7~9 : < 東 > 151 號

I 類型 : 단순한 墓壙을 파고 屍身과 遺物을 넣은 형식으로 입지조건은 평야와 구릉의 끝에 개별적으로 분포한다. 副葬品은 鐵器가 소수이며 細形銅劍 등의 靑銅製品이 우세하다. 土器로는 無文土器가 副葬되는 단계로 파악되며, 遺構構造上 補強土內部에 一部 板石이나 割石이 존재하는 등 積石木棺墓 또는 石棺系石室墓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양자간 상호 관련성이 엿보인다. 대상유구는 70호분으로 B.C. 2世紀末頃으로 추정되며 平面形態는 細長方形에 속하고 長軸方向은 南-北向이다.

II 類型 : 遺構의 平面形態는 長方形에 속하며 長軸은 東-西向이다. 腰坑施設이 유구의 바닥에 마련되어 있으며 유구의 분포가 집단화되어 있다. 副葬遺物은 靑銅器가 사라지고 鐵器위주로 바뀌며 土器는 瓦質土器가 다수 출토되고 있다.

나. 金海 大成洞遺蹟(圖面 4)

金海市 김수로왕릉 뒤에 위치해 있는 小丘陵과 그 주변 平地에 분포해 있으며, 1993년 경성대학교박물관조사단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木棺墓는 주로 구릉하단의 평지에 조성되어져 있

〈表 2. 大成洞 木棺墓〉

()의 수치는 목관의 잔존치임.

號	規 模(cm)			平面形	長 軸	出 土 遺 物
	長	幅	深			
27	275	100	48	末角長方形	東-西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3, 단경호 1, 철촉, 철부, 철모, 철검
53	225 (190)	100 (40)	132 ?	"	"	조합우각형파수부호 1, 철부 1, 玉
I 지구 13	260 (195)	110 (55)	91	"	"	조합우각형파수부호 3, 주머니호 1, 철부 2, 철모, 철검 1, 玉
II 지구 1	250 (220)	100 (60)	131 ?	" (표자)	"	철기 2
구지로 7	245 (196)	110 (50)	116 (25?)	"	"	방추자 1, 철촉, 단경호 1, 용 1
구지로 10	270 (190)	110 (60)	49 (40)	" (표자)	"	곡옥 2, 다면옥 1
구지로 11	270 (225)	97 (55)	52 (30)	"	"	조합우각형파수부호 1, 玉, 용 2
구지로 12	273 (215)	100 (65)	49 (35)	"	"	철대 1, 골제이식 1, 청동환 1, 호 1, 주머니호 1,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3, 철검 1
구지로 40	291 (205)	99 (65)	67 (30)	" (통나무관)	"	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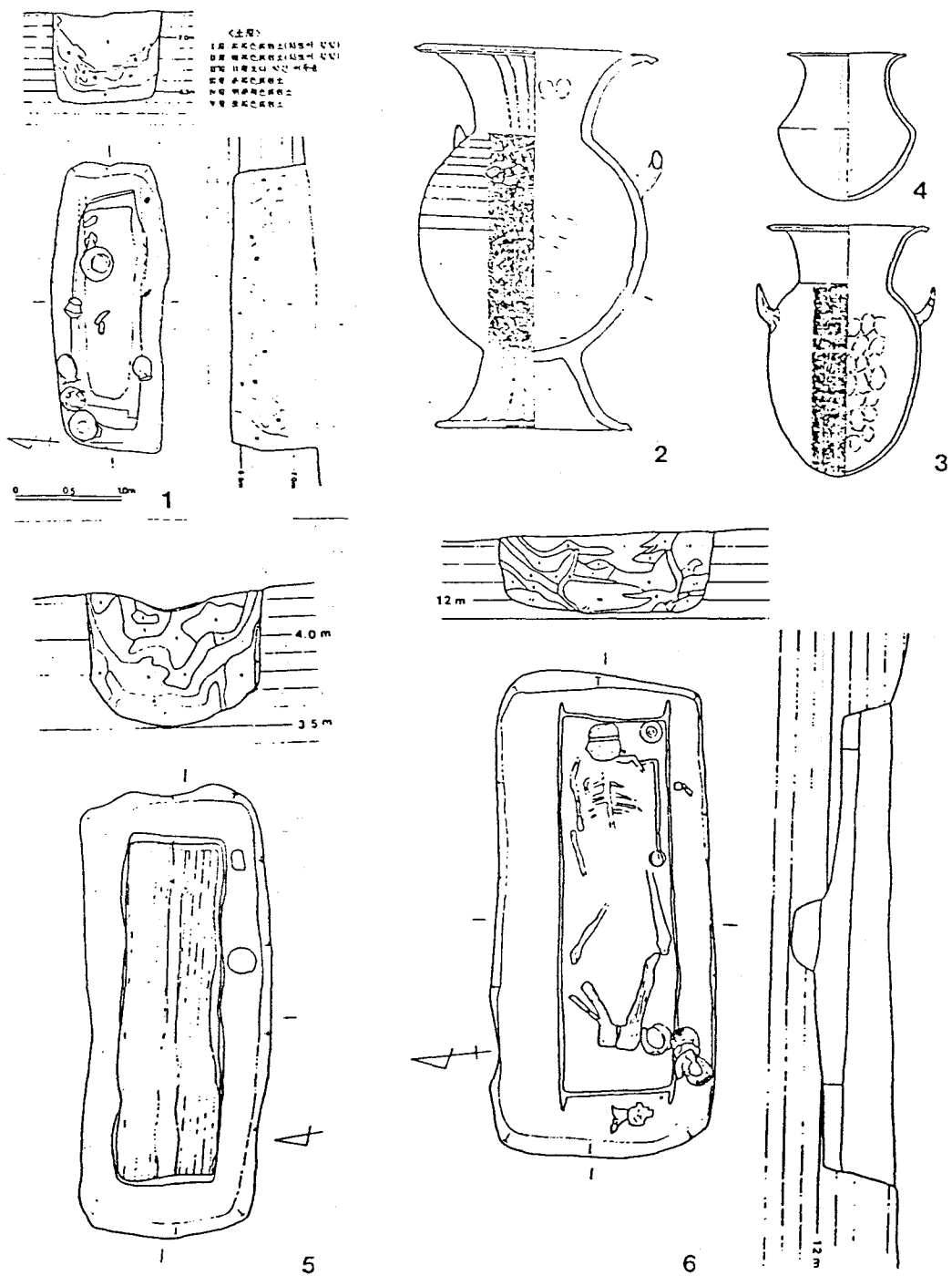


圖 4. 大成洞 木棺墓 - 1~4: 大成洞 周邊 1地區 13號, 5: 周邊 III地區 13號, 6: 龜旨露 12號

으며 약 40여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一部 遺構에서는 木棺의 잔해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木棺의 構造와 系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木棺의 結構 方式은 바닥의 板材위에 長壁의 板材를 세우고 난 뒤, 短壁의 板材를 끼우는 식의 형태와 통나무로 이루어진 木棺의 2종류가 확인되었다²⁾.

다. 昌原 茶戶里 遺蹟(圖面 5)

해발 200m정도의 野山에서 북쪽으로 뻗은 나즈막한 丘陵의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三韓時代의 木棺墓遺蹟으로 7차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遺構는 거의 동일방향으로 열을 짓듯이 배치된 상태이고 長軸이 東-西向인 것이 대부분이다. 木棺은 통나무관이 대다수이며 腰坑을 마련하고 많은 靑銅器 遺物과 鐵器遺物이 부장되어 있다. 封土의 有無는 불확실하나 墓壙내의 含몰상태로 보아 일정규모의 封墳이 조성되어 있었

〈表 3. 茶戶里 木棺墓〉

()의 수치는 목관의 잔존치임.

號	規 模(cm)			平面形	長 軸	出 土 遺 物
	長	幅	深			
1	278 (240)	136 (85)	205 (65)	末角長方形 (통나무관)	南東-北西	동검, 철검, 철모, 농모, 동경, 칠기등 다수
2	290	115 (48)	120		東-西	칠기편, 토기편, 지석
6	260 (180)	125 (80)	150		"	동검, 철검, 유리玉, 관상철부
8	240 (190)	85 (65)	135		"	관상철부
10	270 (190)	105 (50)	90	(통나무관)	"	철검, 관상철부, 칠기등
15	245 (210)	100 (76)	75	(")	"	무문토기, 칠기등
23	235 (200)	112 (62)	93	(")	"	관상철부, 철착, 철검 철모, 와질토기호등
24	277 (215)	86 (84)	112 (58)	(")	"	와질토기호, 농모, 칠기
27	247 (186)	95 (74)	85		"	관상철부, 와질토기호
28	202 (148)	80 (55)	80	(통나무관)	"	주머니호, 토제품

2) 金宰佑, 〈金海大成洞3次發掘調査〉 35回歷史學大會發表要旨,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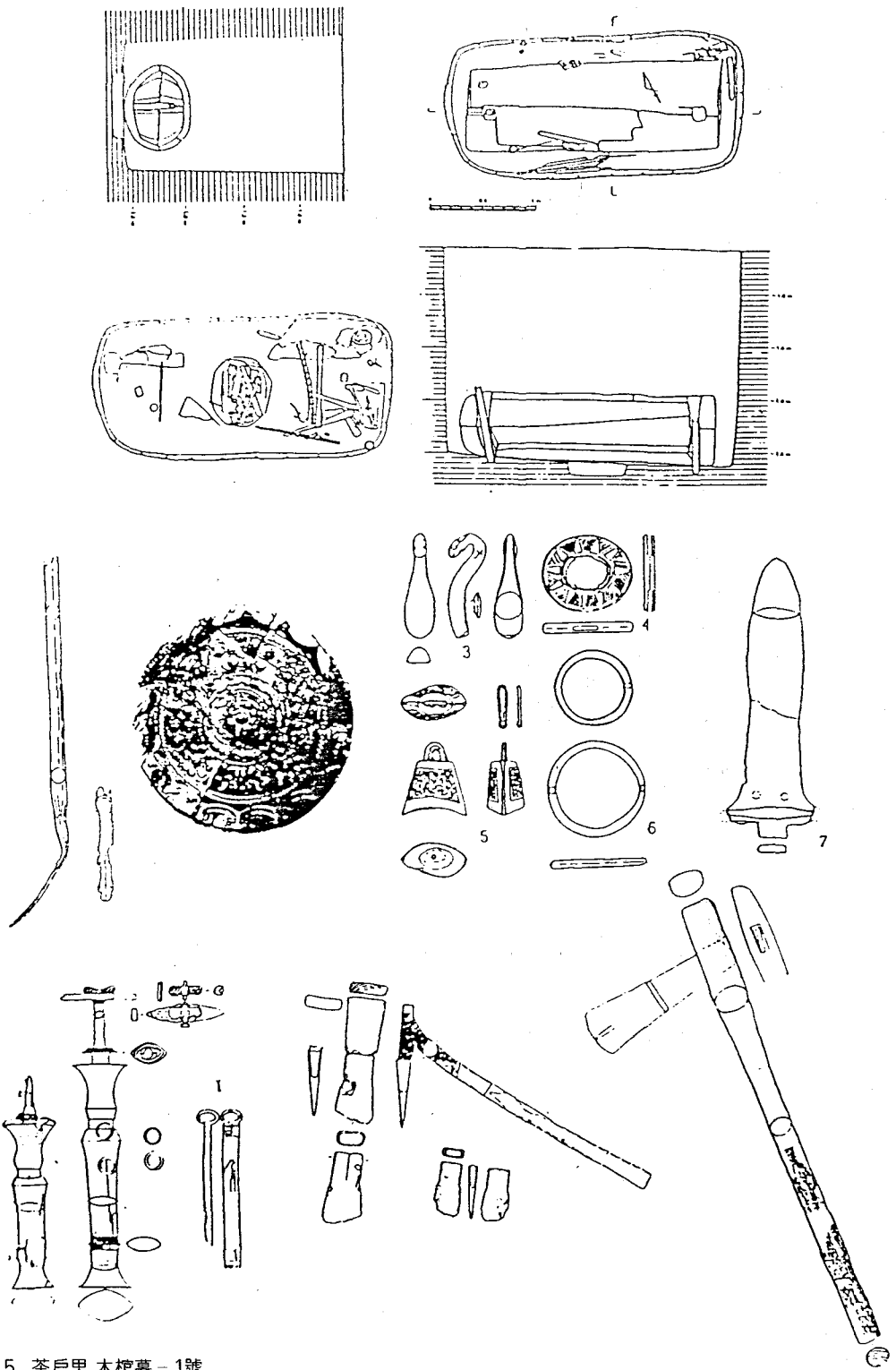


圖 5. 茶戶里 木棺墓 - 1號

을 가능성이 크다³⁾.

라. 咸安 道項里 遺蹟(圖面 6~7)

史蹟84호인 道項里 古墳群의 북쪽 능선상에 위치하며 1992년 10월에 창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발굴조사되었다. 모두 12기이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수기에 불과하며, 대체로 해발 25m~30m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26호분의 경우 長軸이 東-西向이며 木棺의 構造가 卍字相의 형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⁴⁾.

〈表 4. 道項里 木棺墓〉

()의 수치는 목관의 잔존치임.

號	規 模(cm)			平面形	長 軸	出 土 遺 物
	長	幅	深			
18	255 (200)	145 (80)	110 ?	未角長方形	東-西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 1
21	250 (200)	105 (70)	84 (20)	"	"	
22	270 (195)	110 (50)	50 (15)	"	"	호 3. 철검 1, 철검 1, 철부 1, 철촉 6
23	240 (180)	95 (45)	120 (14)	"	"	호 2. 무문토기 1
24	285 (220)	135 (70)	50 (30)	"	"	철모 1, 철검 1
26	265 (200)	135 (55)	110 (14)	" (卍자)	"	호 2. 철검 1, 철부 1, 철검 1
29	245 (180)	125 (75)	60 (30)	"	"	철부 1

마. 慶州 朝陽洞 遺蹟(圖面 8)

慶州市 朝陽洞에 위치하며 東-西로 뻗는 낮은 丘陵地帶에 墳墓群이 분포되어 있다. 1981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26기의 木棺墓를 비롯해 다양한 古墳時代의 遺構가 집중적으 확인되었다⁵⁾.

3) 李建茂,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Ⅰ)〉 考古學誌 1, 1989.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Ⅱ)〉 考古學誌 3, 1991.

4) 李柱憲, 〈道項里古墳群發掘調査와 成果〉 아라가야사학술토론회지, 1994.

5) 韓炳三, 〈原三國時代〉 韓國의 考古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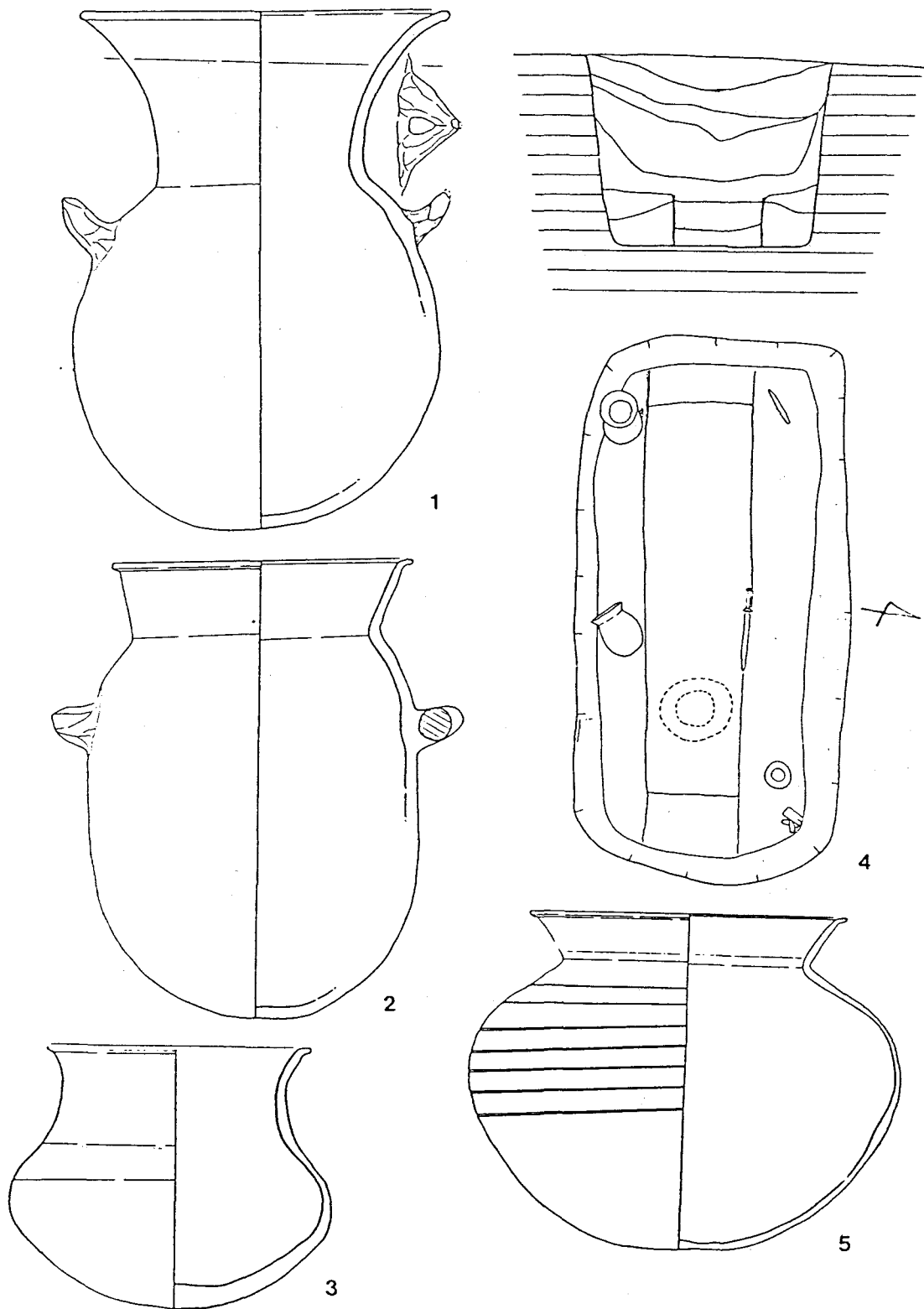


圖 6. 道項里 木棺墓 - 26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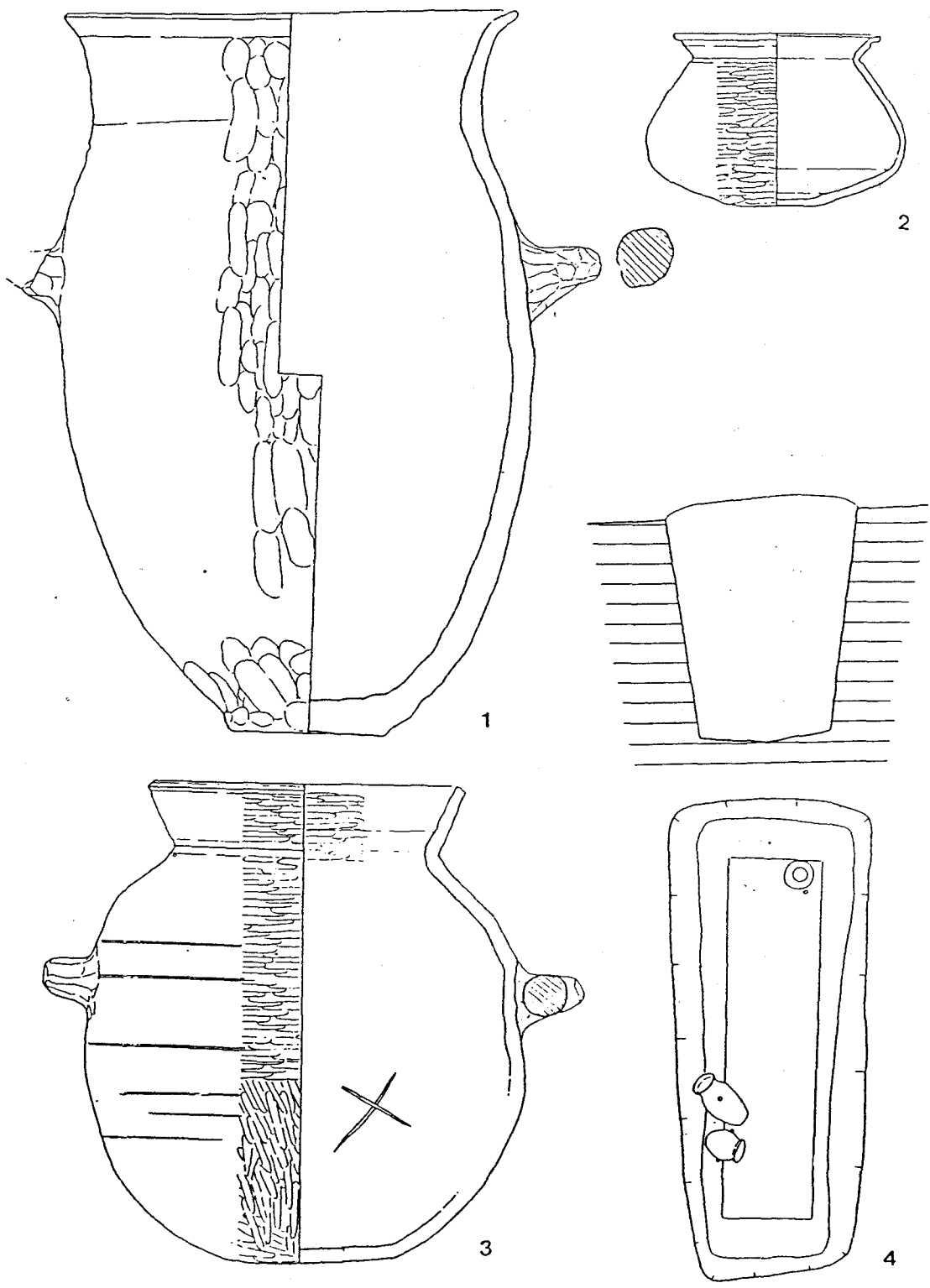


圖 7. 道項里 木棺墓-23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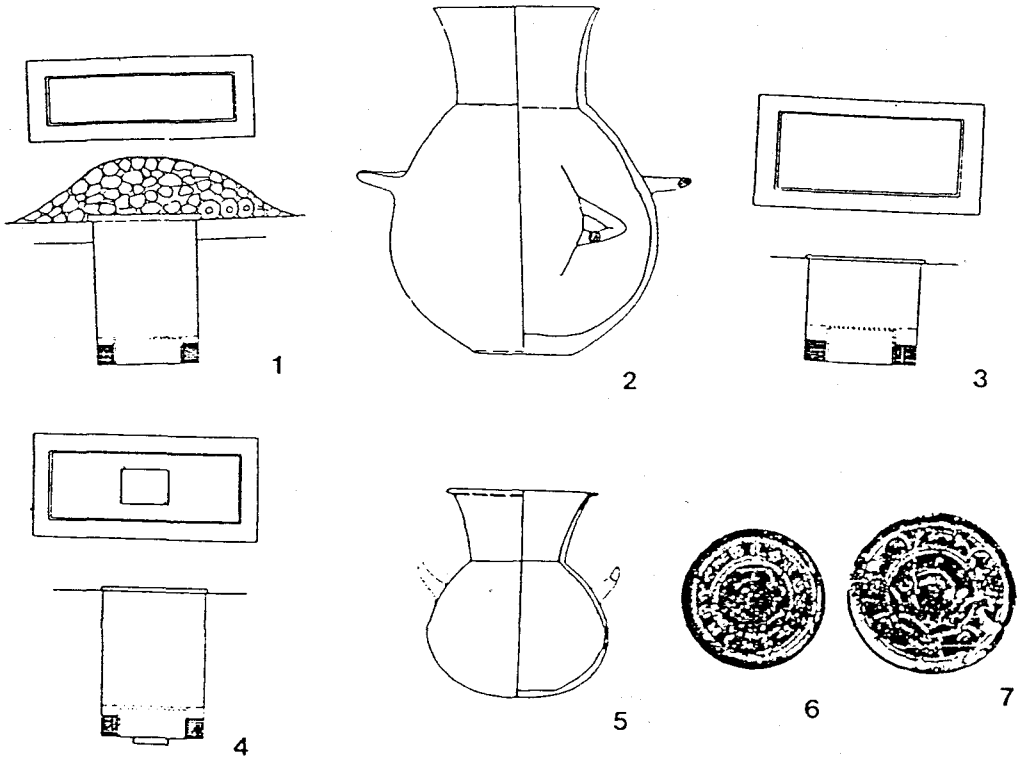


圖 8. 朝陽洞 木棺墓(1·2:5號, 4~7:38號)

Ⅲ. 木棺墓의 構造와 系統

우리나라 古代埋葬施設의 하나인 木棺墓는 종래 土壙墓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遺構인데, 墓壙內의 內部主體 施設이 木棺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⁶⁾.

현재까지 영남지방에서 발견확인된 유적중 木棺의 실체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된 경우는 茶戶里遺蹟의 木棺墓 遺構중 일부에 불과한 상태이며, 大成洞遺蹟에서 겨우 2매의 板材와 結構方法만을 알 수 있는 資料가 확인되었을 뿐으로 木棺의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다수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遺構內의 土層狀態 및 遺物出土狀況, 遺構의 規模 및 分布狀態 등을 면밀히 分析 整理하여 木棺墓의 構造와 系統파악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 構 造

1) 內部構造

木棺墓를 구성하고 있는 內部構造의인 요소로서는 크게 보아 墓壙의 形態와 規模, 木棺의 形態, 遺物의 副葬樣相, 補強土 및 內部 充鎮土의 양상을 들 수 있다.

먼저, 墓壙은 유구를 조성할 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대체로 墓形이 長方形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被葬者의 머리쪽 묘광이 발치쪽 묘광보다 약간 넓은 頭寬足狹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광의 길이는 300cm 미만이 대부분이고, 너비도 170cm이하로서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평균 1.76 : 1에 이른다. 墓壙의 平面面積은 1.4m²~4.2m²에 집중 분포되고 있어서 5.0m²이상 크기의 木槨墓와는 規模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墓壙은 거의 수직으로 파내려가거나, 또는 약간 안으로 경사져 遺構의 바닥에 이르러 墓壙의 크기보다 遺構의 바닥면적이 다소 좁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茶戶里 遺蹟의 경우, 墓壙에서 거의 수직상으로 遺構의 바닥에 이르는 것은 1호분을 비롯하여 墓壙의 깊이가 깊고 너비가 1m이상인 遺構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墓壙이 약간 안으로 경사져 바닥에 이르는 것은 깊이와 너비가 1m이내의 비교적 작고 낮은 형태의 木槨墓들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 이러한 현상은 良洞里 遺蹟에서도 일부 적용될 수 있으나 52호, 55호 151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현 단계로서는 墓壙의 掘着作業時 생긴 無意識의인 現狀의 하나로 파악하고자 하며, 西北韓지역의 木槨墓에서 類型分類時 간추되는 속성과는 달리 아직까지 영남지역의 범위내에서는 時期別 變化나 小單位의 地域色을 간취해 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墓壙의 바닥면에 있어서는 바닥이 고른 평탄한 형태를 하고 있거나 최근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茶戶里 遺蹟과 大成洞 遺蹟 등에서의 예와 같이 副葬坑이 설치된 것도 있다.

木槨은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발견 확인된 棺의 形態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茶戶里 遺蹟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 통나무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잘 묘사되어 있는대로 길이 240cm, 지름 65cm의 참나무屬의 木材를 從方向으로 半切한 후, 그 속을 구유처럼 파내어 木槨의 蓋部와 身部를 만들었으며, 그 모양이 마치 통나무배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를 당시인들의 現實 象徵性 또는 木槨製作의 容易함 등에 관련지어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⁷⁾.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소위 組合式板材木槨으로서 주로 數枚의 板材를 서로 結合하거나 結構시켜 木槨을 짜 맞춘 것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은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遺構內部에 남아 있는 木槨材의 흔적과 관련된 유기질이 腐蝕되면서 木槨의 주위에 채워진 灰白色粘質土의 性質差異에서 생긴 木槨의 外形的 平面形態의 흔적 및 遺構內部的 土層樣相에 의해서 겨우 그 구조과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다행히 최근 大成洞 遺蹟 Ⅲ-1호의 겨우 2枚의 板材가 유구의 바닥면에서 확인된 바 있고, 道項里 26호분에서는 木槨의 平面形態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자료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組合式板材木槨의 형태는 數枚의 板材로서 棺의 바닥을 마련하고 兩쪽 長側의 板材사이에 양쪽 短壁의 板材가 끼워지는 모양으로 平面形態가 卍字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卍字狀組合式板材木槨이 이 시기에 있어서 基本形을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時間이 지나

6) 金基雄, 〈墓制〉, 韓國史論13, 韓國의 考古學Ⅱ-下, 1984.

李南珪, 〈西北韓 土壙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20, 1987.

7) 金亨坤, 〈土壙木槨墓構造研究(1)〉 韓國上古史學報 10,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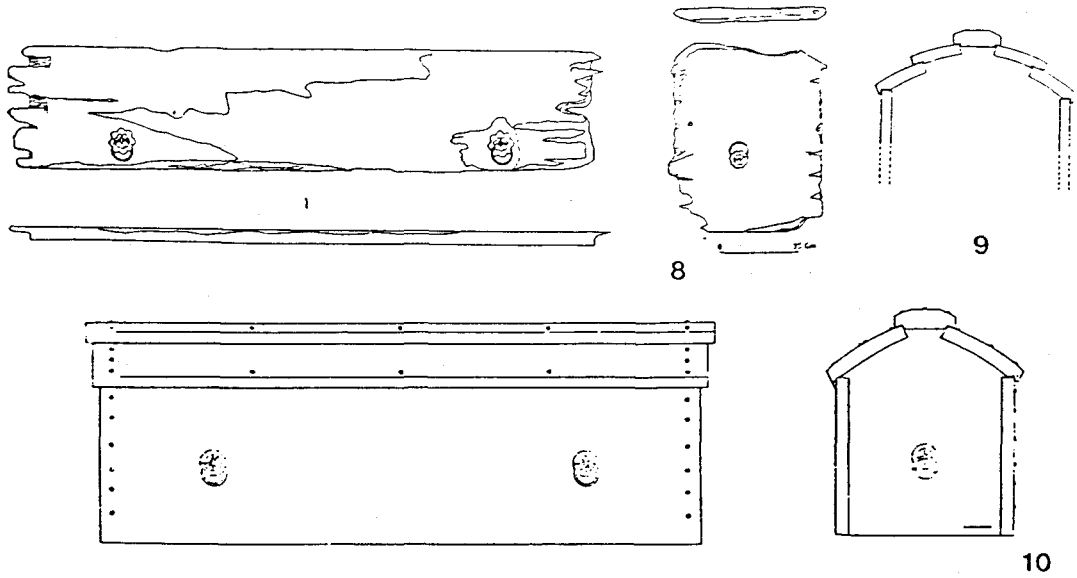


圖 9. 武學王陵 出土 木棺材 (8)와 木棺復元圖

면서 점차 木棺의 結構 方法에 있어서도 天安 花城里遺蹟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木棺의 두껍은 역시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木棺內部の 중앙에서 출토되고 있는 다수의 土器類 및 副葬遺物들이 대부분 木棺의 上部에 놓여졌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茶戶里遺蹟의 통나무관과 樂浪地域에서 발견 확인된 木槨墓內 木棺에서도 모두 棺의 두껍이 마련되어져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木棺의 높이에 대해서는 實物이 존재하는 통나무관의 경우 약58~65cm로 나타나 있어 알 수 있으나, 組合式板材木棺의 경우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다만 土層上에서 파악될 수 있는 補强土의 最大値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各遺構마다 補强土의 最大値는 일정하지 않고 다르며, 대체로 13~40cm로써 25cm이상의 差異를 보이고 있고 평균 높이가 60cm 정도의 통나무관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는 사실 실재 木棺의 높이를 측정된 것이 아니라 遺構內에 殘存하는 補强土의 最大値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래 組合式 板材木棺의 높이는 最小限 40cm 이상이며 最大 통나무관의 높이와 비슷한 60c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木棺材의 材質이나 構造에 대한 양호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樹木의 內部構造가 치밀하고 단단한 樹種이 選好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⁸⁾ 板材의 두께는 墓壙의 바닥면에서 확인된 灰白色 粘質土의 두께인 5~12cm 정도일 것으로 볼 수 있다. 木棺墓에서 발견되는 遺物들은 土器 및 鐵器 그리고 靑銅製 武具類 일부와 裝身具類, 漆器類, 工具類 등이 埋納된다. 棺外副葬의 경우는 크게 補强土內의 副葬과 棺上部副葬, 그리고 묘광밖의 封土內副葬으로

8) 朴相眞, <義昌茶戶里出土木材의 樹種> 休岩里,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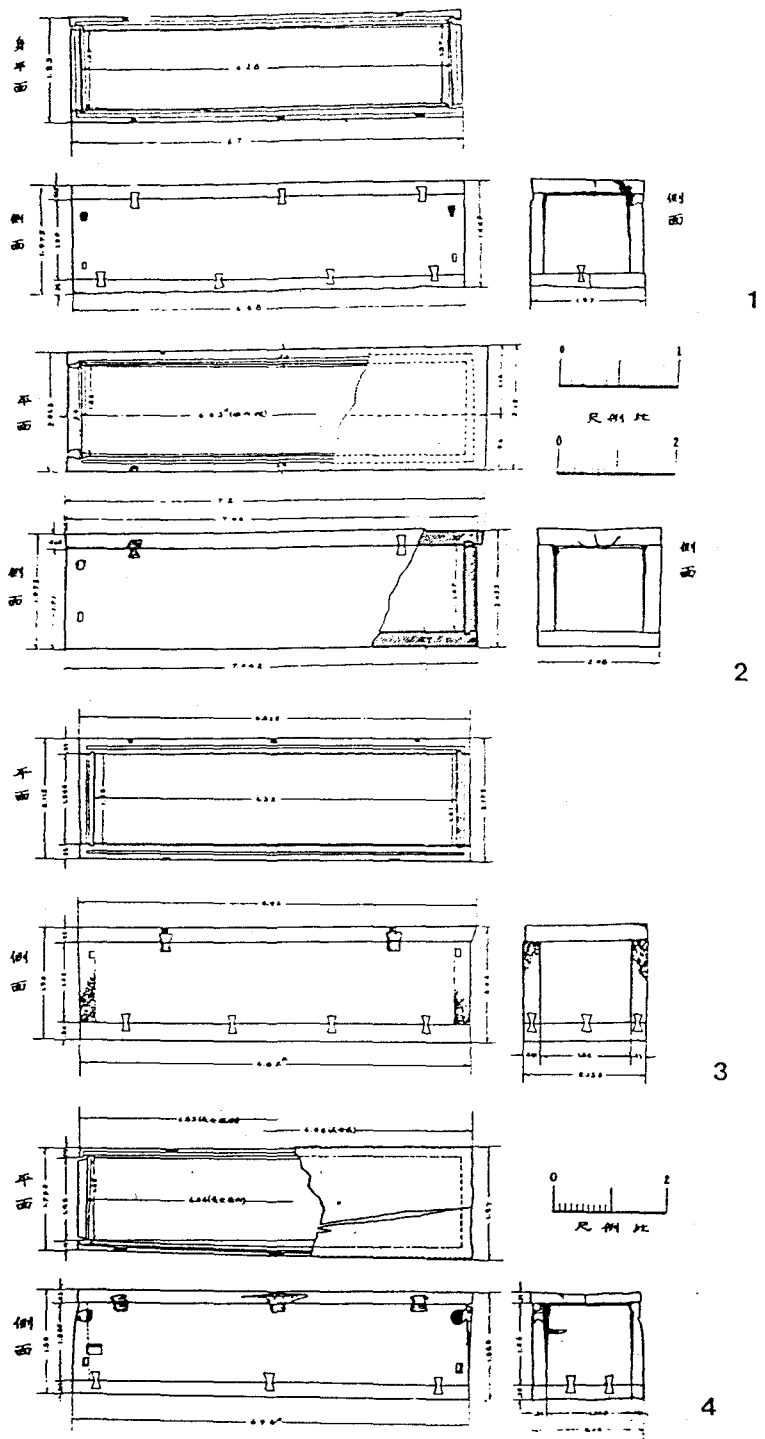


圖 10. 樂浪王冢 墳墓 出土 木棺 - 1: 東棺, 2: 中棺, 3: 西棺, 4: 側棺

나누어 질 수 있다. 補強土는 墓壙과 木棺의 사이 공간에 채워진 흙으로 木棺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粘性이 강한 補強土의 경우는 木棺을 밀폐시켜 腐蝕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土器類와 鐵器類등의 대다수가 이곳에 副葬되며 특히 道項里遺蹟에 있어서 주머니호와 組合牛角形把手付長頸壺의 경우는 대부분 補強土內와 그 上部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특정한 유물의 부장공간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道項里 26호, 良洞里 文2호) 封土內副葬은 木棺墓遺蹟중 극히 일부 遺構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大形の 壺와 같은 遺物이 파괴되어 수습되고 있어서 埋葬의 完了와 더불어 封土의 造成時 어떠한 呪術의 行爲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土壙內를 채우고 있는 充鎮土는 원래 墓壙을 파면서 나온것을 다시 되메운 것으로서 土層上으로 보면 2~3개의 層으로 구분되어진다. 대다수의 木棺墓遺構에서 充鎮土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으며, 土層上의 관찰에 의하면 완만한 U字相을 이루고 墓壙의 壁線에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慶州朝陽洞遺蹟 5호분의 경우에는 墓壙內 土層의 함몰상태가 V字相을 이루며 墓壙바깥 어깨선상의 埋納土器의 일부가 遺構의 바닥내에서 出土되고 있어서 墳墓造成時에는 木棺의 上部가 빈 상태였던 것 같다. 이와같은 充鎮土의 有無差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外部構造

영남지방에서 확인된 三韓의 木棺墓중에서 遺構의 外部構造를 현재 볼 수 있는 遺構는 단 1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中部地方의 명지리의 경우는 야트막한 封墳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⁹⁾ 淸堂洞5호분¹⁰⁾과 鎭川松斗里遺蹟¹¹⁾의 경우 주위의 週構를 封土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平面 長方形의 封土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남지방의 木棺墓에 있어서도 封土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는 遺構內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즉, 木棺의 함몰에 의해서 채워진 土層現狀을 逆으로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어느정도 정연한 높이의 封墳이 인정되어지며 모든 木棺墓의 遺構가 전혀 1기도 중복됨이 없이 설치되어져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封墳의 존재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 遺構마다 일정한 범위의 墓城을 갖고 重複됨이 없이 조성된 사실을 社會經濟史의인 측면에서 私的土地所有觀念의 未分化로 해석하고 있는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것이며 이와 함께 個個墳墓를 地上에서 구분지어주는 標識의 존재와 당시인들의 墳墓에 대한 觀念과 祖上崇拜의 정신세계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封墳의 높이는 遺構內部에서 함몰된 木棺의 높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木棺의 높이는 40~60cm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를 逆으로 復元시킨다면 封土의 最少높이가 추산될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60cm 이상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본다.

9) 韓炳三外, 〈代山面百濟土壙墓發掘調查報告〉 考古學2, 1969.

10) 徐吾善外, 〈天安淸堂洞2次發掘調查報告書〉 松菊里IV, 1991.

11) 趙相起外, 〈淸州 松節洞古墳發掘調查報告〉 1993.

또한 遺構의 墓域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遺構 中心距里의 切半地點을 半徑으로 하는 圓內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道項里 21호의 墓域最大值는 21호와 23호 遺構의 中心距里인 420cm의 1/2에 해당하는 210cm로써 直徑 420cm의 圓內에 있고, 23호의 墓域最大值와 인접한다. 道項里 24호의 경우에 있어서도 墓域의 最大值는 인접한 23호와 22호의 墓域最大值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各 遺構의 封墳은 당연히 各 遺構의 묘域내에 조성되어져야 하며, 인접한 遺構의 墓域을 침범하여 조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木棺墓의 封墳의 形態는 圓形이라기 보다는 方臺形이거나 長方形의 類型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樂浪지역에 분포된 木棺墓의 封墳形態가 方臺形을 띄고 있으며¹²⁾ 高句麗 百濟地域에서도, 이른 시기의 墳墓에 있어서는 封墳의 形態가 모두 方臺形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¹³⁾. 또 앞에서 언급한 天安淸堂洞5호와 松節洞1호, 4호분에서 확인된 週構의 형태가 半橢圓狀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封墳의 形態 역시 墓壙의 形態에 걸 맞는 長方形이거나 方臺形의 것이어야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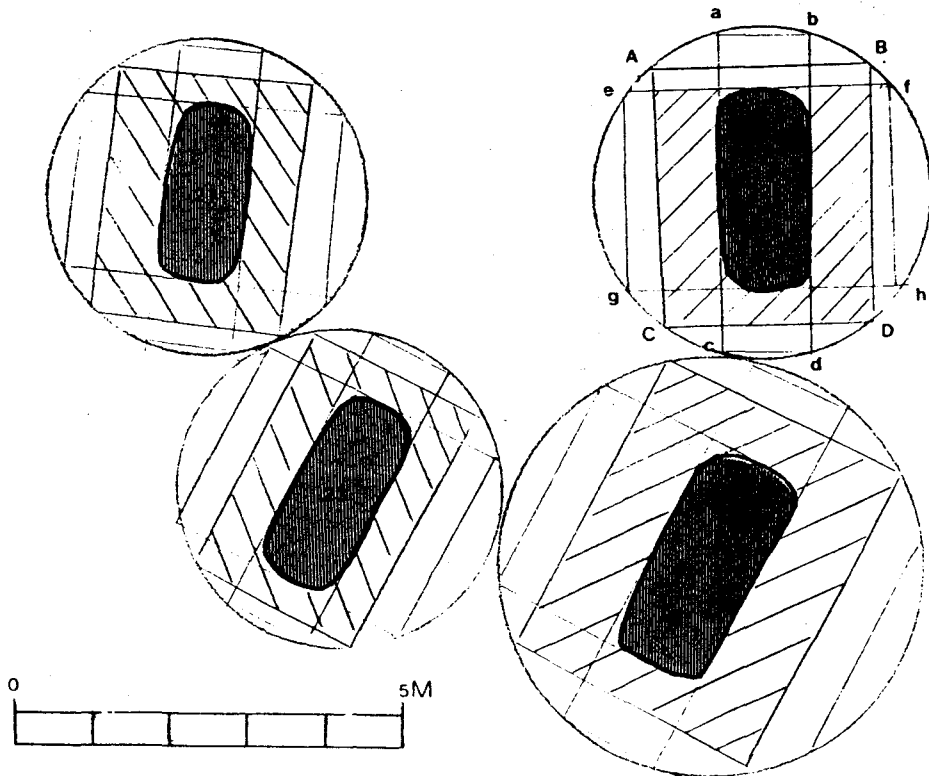


圖 11. 道項里 墓域推定圖

12) 原田叔仁, <樂浪>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930.

13) 權五榮, <中西部地方百濟土壙墓에 대한 試論的 檢討> 百濟研究 22, 1991.

나. 系 統

三韓의 文化에 대한 研究는 近年에 들어와 양호한 遺構의 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큼의 論議가 진행되지는 않은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발견 조사된 遺蹟의 수가 적고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資料의 分布와 발굴자료의 未發表로 인한 다수의 중요한 資料가 死藏되고 있음이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三韓社會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古代國家形成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매우 의미깊은 時期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당시 社會構成員들의 主墓制로 알려져 있는 木棺墓에 대한 研究는 先行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木棺墓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木棺墓의 系統問題인 것 같다.

木棺墓의 構造와 관련하여 三韓木棺墓의 系統을 검토해보면, 우선 통나무관(Ⅱ類)의 原流를 中國에서 구하려는 견해가 있다¹⁴⁾. 특히, 腰坑施設이 설치된 통나무관을 戰國時代 雲南省 楚雄万家坂1호묘와 관련지어 腰坑內의 貴重品埋納과 棺의 形態, 下棺과 運睡에 이용된 구멍 등에서 상호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中國內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棺은 黃河江流域과 그 이남의 華南地域이 中心地이고 北京이북의 燕나라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된 바가 없으므로 三韓地域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통나무관은 그 원류가 中國 華南地域에 있고 燕이나 古朝鮮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楚雄万家坂遺蹟의 木棺墓와 茶戶里遺蹟의 통나무관을 비교해보면 사실 통나무관과 腰坑이 존재한다는 것만 유사할 뿐, 그의 遺構의 規模나 出土된 遺物에 있어서도 전혀 이질적인 문화요소가 발견되며 유적이 조성되고 있는 中心時期도 다소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를 國內의 中部地方에서 확인되고 있는 소위 石棺墓系統의 墓制가 내부의 埋葬主體部에 木棺을 사용한 積石木棺墓일 가능성이 큰 점에서 韓國式銅劍文化와 함께 木棺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¹⁵⁾. 和順 大谷里遺蹟에서 출토된 木板의 경우 현재 조각이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나, 한면이 약간 둥근면을 지니고 있어서, 그 남은 형태로 보아 板材라기 보다는 통나무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木棺이 일찍부터 韓半島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組合式板材木棺墓(Ⅰ類)는 동아시아전역에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木棺으로 대체로 板材의 結構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板材木棺墓의 系統은 中國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樂浪古墳의 木棺形態와도 유사하지만 夫餘族의 무덤인 榆樹老下深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木棺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⁶⁾. 그리고 日本의 彌生時代 木棺도 거의가 板材로 구성된 箱形木棺이며 이들의 원류가 韓半島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三韓의 木棺墓內에서 출토되고 있는 遺物의 系譜와 관련지어 木棺墓의 系統을 파악하고 있는

14) 李在賢, 〈三韓時代木棺墓에 관한 考察〉 제19회 부산고고학연구회발표요지, 1992. 10.

15) 李建茂, 註3)의 前揭書, 1991.

1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下深〉, 1987.

17) 福永伸哉, 〈彌生時代の 木棺墓と 社會〉 考古學雜誌 32-1,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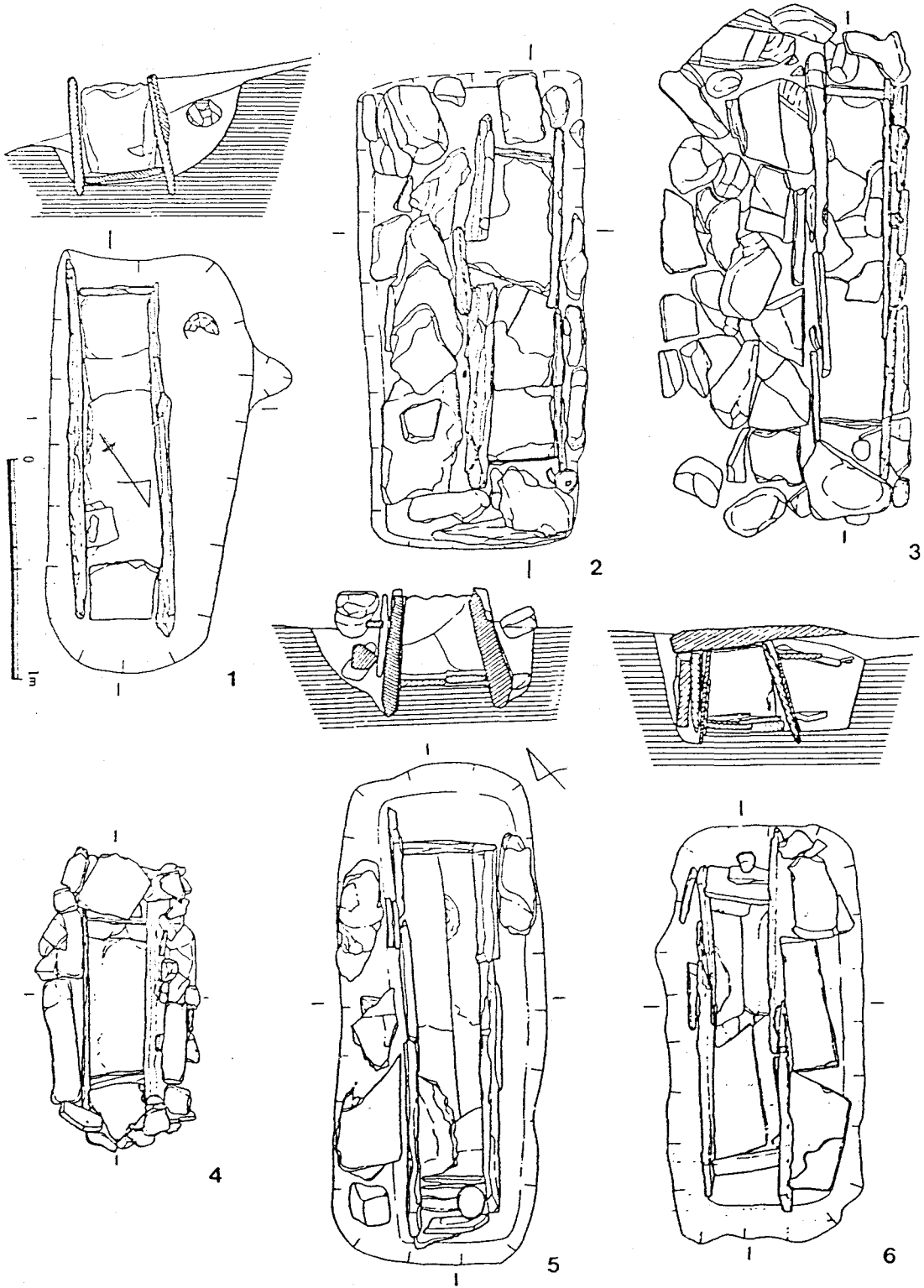


圖 12. 新村里 石棺墓—1：2號，2：3號，2：5號，4：11號，5：7號，6：9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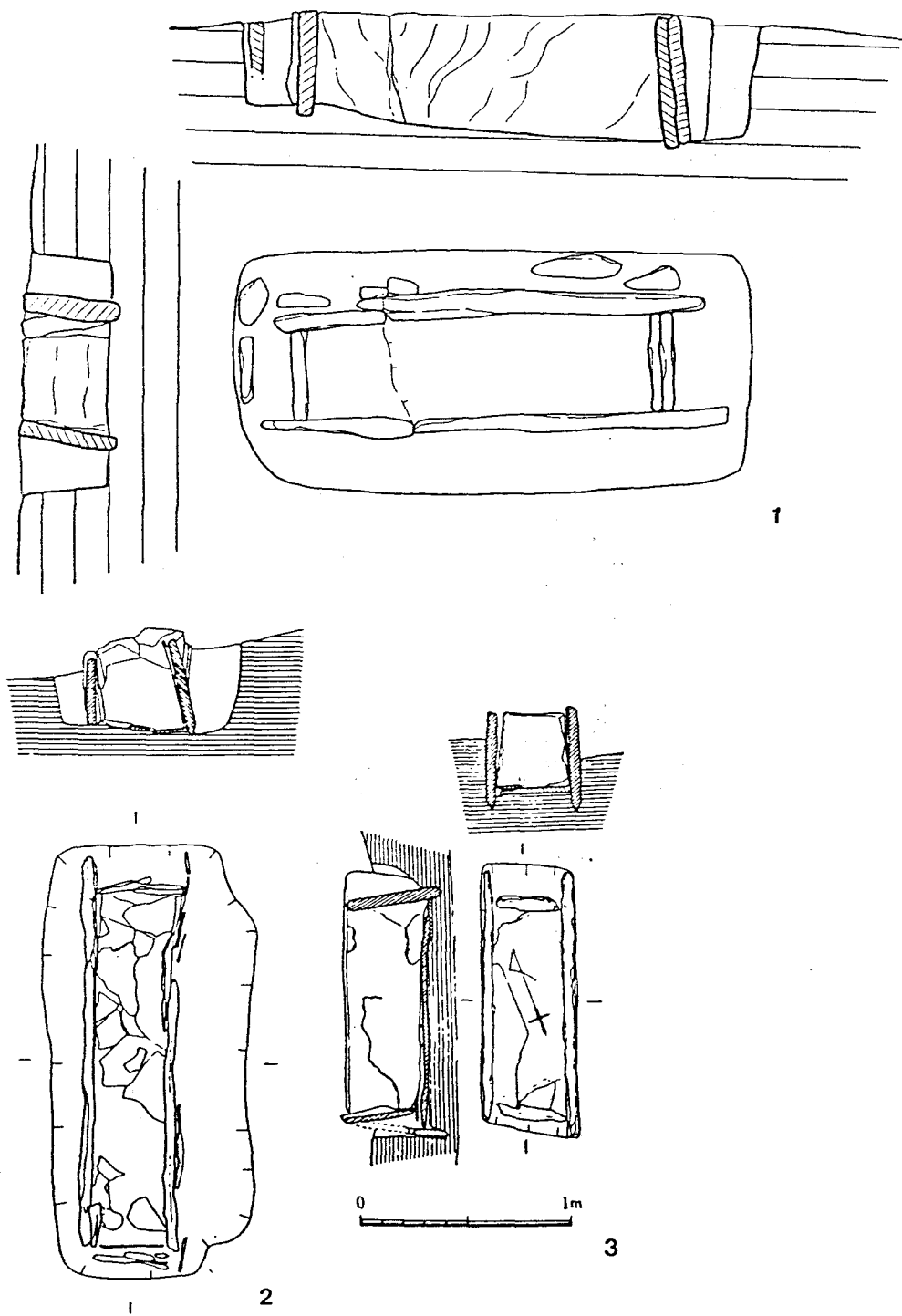


圖 13. 新村里 石棺墓 (2·3) 吳 道項里 石棺墓(1:46號)

견해도 있는데¹⁸⁾, 琵琶形銅劍, 細形銅劍 등 儀器的 性向이 강한 遺物을 주목해 種族的 갈래나 文化的 系統을 韓半島의 西北韓地域의 土壙墓社會와 연결짓고 洛東江 下流域 土壙墓의 주인 公도 西北韓 地域으로부터 이주한 古朝鮮, 衛滿朝鮮系 주민으로 대표되는 이주민으로 파악하고 있다.

組合式板材木棺은 그 구조가 대부분 卍字相으로서 靑銅器時代의 石棺墓나 支石墓의 下部構造에 板石으로 결합된 卍字相石棺構造와 規模 및 形態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도면 10, 11). 卍字相의 石棺墓는 無文土器時代의 전반에 걸쳐서 地域性을 보이지 않고 韓半島에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서 形態 및 構造相 石棺의 가장 안정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다만 이러한 石棺墓의 中心年代가 無文土器時代 中期 以前으로 編年되고 있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積石木棺墓등과는 서로 그 系統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學界의 통설이므로 卍字相 石棺墓를 三韓의 卍字相 組合式板材木棺墓의 직접적인 祖型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石棺의 形式에는 차이가 있지만 固城술섬유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紀元前1世紀頃까지 石棺墓는 계속적으로 三韓의 奧地에서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따라서 無文土器時代의 石棺墓文化가 材質인 石材를 구하고 이를 가공하는데 수행되는 고도의 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이 전래된 金屬製工具類의 登場에 의해 棺의 製作에 있어서 石材보다 다루기가 용이한 木材로의 漸進的인 變化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遺物의 出土狀況과 遺構內部가 공간으로 추정되는 朝陽洞 5호와 같은 構造는 忠淸道, 全羅道 地域에서 발견되고 있는 積石木棺墓 및 圍石木棺墓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것이므로, 和順大谷里²¹⁾, 夫餘合松里²²⁾, 咸平草浦里²³⁾ 등지의 前段階遺構에서 그 傳統을 찾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靑銅器時代이래의 土着的인 文化要素에 中國的인 要素와 樂浪文化의 要素 등이 遺物上에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인정되며 이는 당시의 記錄上에 보이는 箕子朝鮮의 滅亡과 이에 따른 國際政勢의 變化 등 歷史的인 事實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木棺墓의 系統에 있어서는 無文土器時代이래로 韓半島내에서 보편적인 분포상을 보이고 있는 石棺墓 및 積石木棺墓, 圍石木棺墓의 傳統을 繼承하면서 이후 流入된 中國的, 樂浪的인 文化要素를 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IV. 木棺墓의 出現과 三韓時代의 展開

韓半島 中南部地域에서 木棺墓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時期가 언제인가는 명확히 밝힐 수는

18) 林孝澤, 註1)의 前掲書.

19) 鄭澄元, 〈墓制〉, 韓日交涉의 考古學(彌生時代編), 1991, pp.76~82.

20) 東亞大學校博物館, 〈固城松川里 술섬 石棺墓〉, 1977.

21) 曹由典, 〈全南和順靑銅遺物—括出土遺物〉,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 1984.

22) 李建武, 〈夫餘合松里遺蹟出土—括遺物〉 考古學誌 2, 1990.

23) 李建武外, 〈咸平草浦里遺蹟〉 國立光州博物館, 1988.

없지만 대략 鐵器를 供伴하지 않고 細形銅劍을 副葬하는 積石木棺墓段階일 것이다. 이 段階에 해당하는 中南部地方의 遺蹟들로는 大田槐亭洞遺蹟²⁴⁾, 和順 大谷里遺蹟, 益山 龍堤里遺蹟²⁵⁾, 牙山 南城里²⁶⁾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忠南, 全羅地域에 集中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大田槐亭洞遺蹟은 細形銅劍文化期의 대표적 유적의 하나로서 銅劍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형적인 細形銅劍의 節帶와 挾入部가 나타나면서 등대의 陵角이 節帶部分에서 그치고 挾入部이하의 劍身이 둥글게 遼寧式銅劍의 흔적을 남기는 銅劍을 그 標式的 遺物로 하고 있으며 中南部地域에 細形銅劍文化가 土着化 되어가는 段階로 알려져 있다. 이 系統의 遺蹟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遺物로는 細形銅劍이외에 과도기적 형태의 粗文鏡, 防牌型銅器, 劍把型銅器, 黑色磨研長頸壺, 粘土帶土器, 天河石製飾玉 등이 있다. 墓制上으로 이 系統의 遺蹟은 주로 石棺墓이나 磨制石劍, 石鏃만을 副葬하는 石棺墓系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²⁷⁾. 이들 遺蹟의 대부분은 紀元前3世紀에서 2世紀中葉頃으로 편년되며, 防牌形銅劍, 圓蓋形銅器, 扇型銅斧 등과 같은 靑銅器 등은 遼寧地區 靑銅器文化에 그 源流를 두고 있다²⁸⁾. 또한 古朝鮮地域과는 橫的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기도 하는데, 함경남도 永興洞출토 銅斧鎔范²⁹⁾과 매우 유사하다. 동시에 槐亭洞, 南城里, 燕化里 등지의 遺蹟에서 출토되고 있는 天河石製飾玉은 遼寧式銅劍文化遺蹟인 夫餘松菊里와 平南介川郡 龍興洞出土 飾玉과 繼承의 발전관계에 있으며³⁰⁾, 無莖式三角型石鏃은 土着的이고 傳統的인 성격을 나타내는 遺物로 파악되고³¹⁾ 있어서 이 段階 遺蹟들의 性格은 韓半島內 無文土器文化의 일환으로서 靑銅器의 源流를 遼寧地方靑銅器文化에 두고 前段階의 靑銅器文化를 從的으로 繼承하고 橫的으로 古朝鮮의 細形銅劍文化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中部以南地域이 韓地 또는 韓王 등으로 文獻에 記錄되기 시작한 것은 朝鮮王準의 南走記錄이 처음이며 實年代로는 紀元前 198年이다³²⁾. B.C.2世紀初葉 中南部地域에는 이미 韓이라는 政治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文化的 水準은 古朝鮮地域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準王의 南走는 새로운 靑銅器製作技術의 擴散 또는 戰國式 鐵器流入의 중요한 契機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B.C.3~2世紀頃의 中南部地域의 전반적인 靑銅器使用과 製作狀態를 보아 準王南走의 역사적 의의는 古朝鮮系靑銅器 製作集團의 移住를 意味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되어질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考古學的 資料에 의하면 이와같은 文獻記錄을 충족시킬 수 있는 政治集團의 존재는 B.C.3世紀이래 靑銅器文化의 中心地로 存續

24) 李殷昌, 〈大田槐亭洞靑銅器文化의 研究〉 亞細亞研究 11-2, 1968.

25) 金元龍, 〈益山郡梨堤出土一括遺物〉 史學研究 20, 1968.

26) 韓炳三外, 〈南城里石棺墓〉, 1977.

27) 李種善, 〈韓國石棺墓研究〉 韓國考古學報 1, 1976.

28) 金元龍, 〈沈陽鄭家窪子靑銅器時代墓와 副葬品〉, 東洋學6, 1976.

29) 서국태,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고고민속2, 1964.

30) 韓炳三, 〈曲玉의 起源〉 考古美術 129·130合, 1976.

31) 임세권, 〈우리나라마제석촉의 연구〉 한국사연구 17, 1977.

32) 朝鮮王準, 走入海居韓地 自號韓王(三韓志 東夷傳).

發展해온 忠淸, 全羅 地域內에서 찾아져야 하며 慶尙道地域으로 移住하여 辰韓形成의 主體가 된 辰國이라는 구체적인 政治集團의 存在를 인식해야 될 것이다.

嶺南地方에서 확인되고 있는 木棺墓들의 起源과 系統을 無文土器時代 後期 積石木棺墓, 圍石木棺墓에서 繼承 發展되어온 것으로 파악할 경우, 忠淸, 全羅地域에서 이들 遺構가 처음 出現하는 B.C.3世紀頃이 木棺墓의 上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文獻記錄上에 보이는 韓이라는 存在와 관련지어 三韓時代의 上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매우 概括적이고 散漫하게 三韓時代 木棺墓의 構造와 그 系譜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아직 木棺墓의 概念조차 明確히 定義되지 않고 對象遺蹟의 調査가 수곳에 불과한 現단계에서 木棺의 構造와 系統問題를 論한다는 것은 어찌면 시기상조일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실 本稿는 三韓時代 木棺墓의 構造와 系譜에 대한 完결된 제시가 아니라 客觀적인 檢討와 試論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各遺蹟別 個個遺構에 대한 세밀한 編年體系의 樹立과 出土 遺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西北部, 中西部地方에서 발견되고 있는 木棺墓와의 比較檢討 등에 의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內容으로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追 記〉

本稿는 제3회 부산대-구주대 고고학공동연구회(福岡: 1994.7.16~7.19)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본보에 게재하였다. 위학회의 관계 연구자로 부터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교시 받을수 있었기에 감사 드린다.